

朴在彬*
趙南勳**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의 推定

目次

I.	序 論
II.	分析方法 및 資料
III.	主要結果
IV.	考 察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出産力을 低下시키는데에 있어서 가장 큰 沮害要因으로 子女數의 規範과 男兒選好思想을 흔히 擧論하여 왔으며, 實際로 子女數는 그 自体가 婦人의 出産力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自意에 의하여 避妊이 可能한 경우 子女數의 規範이 出産力의 高下를 左右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男兒選好로 인하여 一定數의 아들을 꼭 가져야 한다고하면 그數 以下로 子女數의 規範을 變化시킬 수 없으므로 兩者間에는 密接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男兒選好思想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을 論할때, 子女數의 規範을 통한 間接的인것 보다 所定數의 아들을 낳을때까지 生殖活動을 계속한다는 想定에서 오는 直接的인 것에 더욱 留意하는 것 같다. 이에 관하여 Sheps (1963)는 아들 2명이 出生할 때까지 生殖活動을 계속한다면 理論上 平均 3.88명의 出産으로 원하는 男兒數의 約 두배의 子女를 낳아야 한다는것을 呈示한 바 있다.

韓國에서 男兒選好思想이 극심하게 강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過去의 여러 研究를 檢討해 보면 어떤 接近方法을 取하였건 反論이 나올 餘地가 없다. 例를 들어 男女別 理想子女數를 보면 언제나 男兒數가 女兒數를 월등하게 超過하고 있다. 또 現存子女의 性別分布에 따라 가족계획실천율에 현저한 差를 보인다. 1982년의 調査를 보면 두子女의 家庭에서 아들 둘을 가졌으면 71퍼센트의 婦人이, 딸 둘을 가졌으면 41퍼센트의 婦人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對照를 보이고 있다.¹⁾

* 美國 하와이大學校 保健大學院 教授.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委員.

1) 文顯相外, 1982年度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 서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만일 딸만 계속해서 出生하면 어떻게 할것인가를 묻는것도 자주 取해지는 接近方法인데 1972年 韓國行動科學研究所調查에서 50퍼센트의 婦人이 男便에게 쫓을 얻게 하여서라도 아들을 얻겠다고 하였다고 하여²⁾ 外人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³⁾

최근의 全國調查에서도 만일 딸만 둘 수 있으면 아들 낳을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婦人이 48.8퍼센트였다.⁴⁾

이렇게 강한 男兒選好傾向은 性選好度を 測定하기 위하여 展開理論(unfolding theory)에 依據, 開發된 Coombs의 IS尺度⁵⁾에서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韓國에 대한 IS値는 여러 研究에서 高度의 一致度を 보이고 있으며 Bulatao外(1978), 朴빛金(1976), Kim 및 Choi(1981)의 調査는 하나같이 5.3이란 높은 數値를 呈示하였다. 限定된 地域이기는 하나 Kwon 및 Lee(1976)는 더욱 높은 5.5로 報告하였다. Freedman 및 Coombs(1974)는 5個의 基準에 의하여 15個國家를 比較한 結果 韓國을 男兒選好도가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調查는 主로 男兒選好度の 強弱을 나타낸 것이지 그 것으로 말미암아 出産力에 影響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現存子女의 性分布에 따라 避妊實踐度에 差가 있음은 男兒選好가 出産力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強力히 示唆하는 바이지만 이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間接的인 증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發表된 一聯의 Park(1978, 1983)의 報告로 보면 男兒選好가 出産力에 影響을 미쳤음을 經驗的으로 알 수 있다. 즉, 既出生子女의 性分布에 따라 그다음 아이를 가지는 確率과 間隔에 差가 있으며 女兒만 있는 家庭일수록 多子女家庭으로 移行하는 傾向이 甚한 것이 實查資料로 나타났다. 또 子女의 性比도 少子女家庭일수록 높았고 最後에 出生한 아이의 性比는 133.3이란 높은 男兒超過였음에 반하여 그前 出出兒들의 性比는 101.4에 不過하였었다. 그러나 이것도 男兒選好가 出生率에 影響을 입혔다는 質的인 呈示에 不過하고 量的인 影響力測定은 아니었다.

2) Chung, B. M., et 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ym, 1972.

3) Rinehart, W., "Sex Pre-Selection-Not Yet Practical," *Population Reports*, Series I, No. 2, 1975.

4) 文顯相外, 前揭書, 1982.

5) Coombs, C. H., et al., "Preference Scales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29, 1975, pp. 273~298.

만일 男兒選好가 出産力低下의 沮害要因이라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度를 測定하여 그 重要性을 呈示하여야 할 것이다. 불행히 이 問題는 별로 다듬어져 있지 않다. 一般的으로 앞의 Sheps의 計算에 의거하여 막연히 男兒選好는 願하는 男兒數의 二倍에 達하는 出生을 招來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 같다. 反面에 Kwon(1982)은 男兒選好의 影響은 微微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즉 女兒만 있는 家庭에서는 男兒를 願하는 만큼 出生數가 많아질 것이지만 女兒란 꼭 있어야 하는 子女가 아니기 때문에 男子만 出生하면 願하는 子女數에 到達하지 않았어도 出生行爲를 中止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男兒選好의 影響은 서로 相殺된다고 하였다.

本稿는 男兒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의 推算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만 있는 家庭에 있어서는 딸을 얻기 위하여 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을 것을 考慮하여 여기서는 男兒選好의 概念을 擴張하여 子女의 體性選好(以下 單純히 性選好라 稱할 것임)의 影響을 論하기로 하였다. 이 目的을 위하여 1974年의 全國出産力調査와 1979年의 피임보급실태조사 結果를 利用하여 性選好가 있을때와 없을때의 婦人當 平均出生數와 子女의 性配合別 期待分布를 計算하였다.

II. 分析方法 및 資料

概念的으로 性選好때문에 오는 過剩出生數의 推算은 容易하다 하겠다. 現在 實存하는 性選好下에서 發生하는 出生頻度와 이 性選好가 없어진 條件下에서 發生할 出生頻度를 比較하여 그 差를 관찰하면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實際로 있는 性選好를 없다고 想定하여 그 條件下에서 發生할 出生數의 計算은 하나의 假定에 지나지 않음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出産力에 聯關된 調査에는 追加子女의 希望與否를 묻는 項目이 흔히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注目하여 追加子女를 願하지 않는 婦人以外는 全部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고 1974年과 1979年의 調査資料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를 願하지 않는 可妊婦人의 比率을 現存子女의 性分布別로 呈示하면 表 1과 같다. 즉 同一한 子女數를 가져도 그 子女들의 性分布에 따라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의 比率에 상당한 差가 있다. 同一 子女數內에서의 이러한 差異는 父母의 性選好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일 父母가 子女의 體性에 無關하다면 出生行爲가 等質的인 社會에서는 오로지

子女數의 規範에만 의거하여 追加子女를 願하는 比率이 規定될 것이다. 따라서 性選好가 없는 경우 子女數만 주어지면 그속에 아들이 있건 없건 아이를 원하지 않는 比率은 同一할 것이다. 즉 주어진 子女數內에서는 모든 性分布가 같은 出生進度確率

Table 1. Percent of Currently Married, Fecund, Non-pregnant Women Who Want No More Children by Sex Composition of Existing Children, 1974 and 1979, Korea

有配偶 可妊婦人중 現存子女의 性別 追加子女를 願치 않는 比率

Family Size	Sex Composition	1974 ^{a)}		1979 ^{b)}	
		Number	Proportion	Number	Proportion
0	-	168	12.5	614	8.0
1	1 M 0 F	267	16.5	835	22.5
	0 M 1 F	230	11.7	648	13.1
2	2 M 0 F	224	77.0	849	82.9
	1 M 1 F	361	71.2	1,310	77.6
	0 M 2 F	112	35.7	371	34.8
3	3 M 0 F	128	93.8	386	94.8
	2 M 1 F	402	96.5	1,200	98.2
	1 M 2 F	252	81.7	897	87.2
	0 M 3 F	60	46.7	193	43.5
4	4 M 0 F	49	100.0	127	98.4
	3 M 1 F	180	98.9	554	99.8
	2 M 2 F	302	97.7	840	99.8
	1 M 3 F	176	81.3	465	93.5
	0 M 4 F	31	54.8	87	42.5
5	5 M 0 F	27	96.3	33	100.0
	4 M 1 F	62	100.0	156	99.4
	3 M 2 F	145	99.3	381	99.7
	2 M 3 F	170	99.4	477	99.2
	1 M 4 F	78	80.8	264	92.8
	0 M 5 F	16	43.8	37	40.5
All Samples		3,851 ^{c)}	74.2	11,602 ^{c)}	75.2

Source : a) Korea, NBOS and KIFP (1977) T351.

b) KIPH, unpublished table from the Korean Contraceptive Prevalence Survey (Tabulated by Ms. Hahm).

c) includes women with 6+ children.

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때, 性選好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婦人이 있으므로 이 同一出生進度率로는 그 子女數內에서 觀察된 것 中 가장 적은것이 適用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74年의 경우 性選好가 없다면 모든 2兒家庭에서 77퍼센트가 아이를 더 안가질 것이다 性選好가 있기 때문에 그중 1男1女로 된 家庭 71.2퍼센트가, 2女로 된 家庭은 35.7퍼센트가 다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利用할 假定은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1) 주어진 出生順位(parity)에 있는 婦人은 追加로 아이 갖기를 願하지 않는 婦人을 除外하고 모두 다음 順位로 進出한다. 즉 이것은 無制限可妊性(unlimited fecundity)을 말하고 있다.

(2) 追加子女를 願하지 않는 婦人은 全部 有効한 피임法을 實踐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完全避妊社會를 생각하고 있다.

(3) 모든 婦人이 同一하게 妊娠危險에 노출되어 있고 現存子女의 性分布에 따른 差異出生率은 없다(可妊等質性).

(4) 合計出生率을 計算할 때와 같이 婦人의 死亡力을 無視한다.

(5) 自然的인 不妊狀態, 未婚 등에서 오는 無子女婦人을 2 퍼센트로 본다.

(6) 모든 出生에서 男兒出生確率은 同一하며 그 數値는 0.515이다.

以上の 假定을 表 1의 資料에 適用하면 性選好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理論上 子女數別 家庭分布를 쉽게 作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無子女家庭의 頻度는 다음과 같다. 1974年의 경우 面接無子女婦人中 12.5퍼센트가 追加子女를 願치 않았으나 이는 全標本 3,851人中 168人으로부터의 應答이므로 全體的으로 보면 $(168) / (3851) = 0.0436$ 퍼센트의 婦人이 아이를 전혀 願하지 않는 結果가 된다. 여기에 自然不妊等에서 오는 2 퍼센트를 加한 2.545퍼센트의 婦人이 無子女 즉 出生順位 0으로 計算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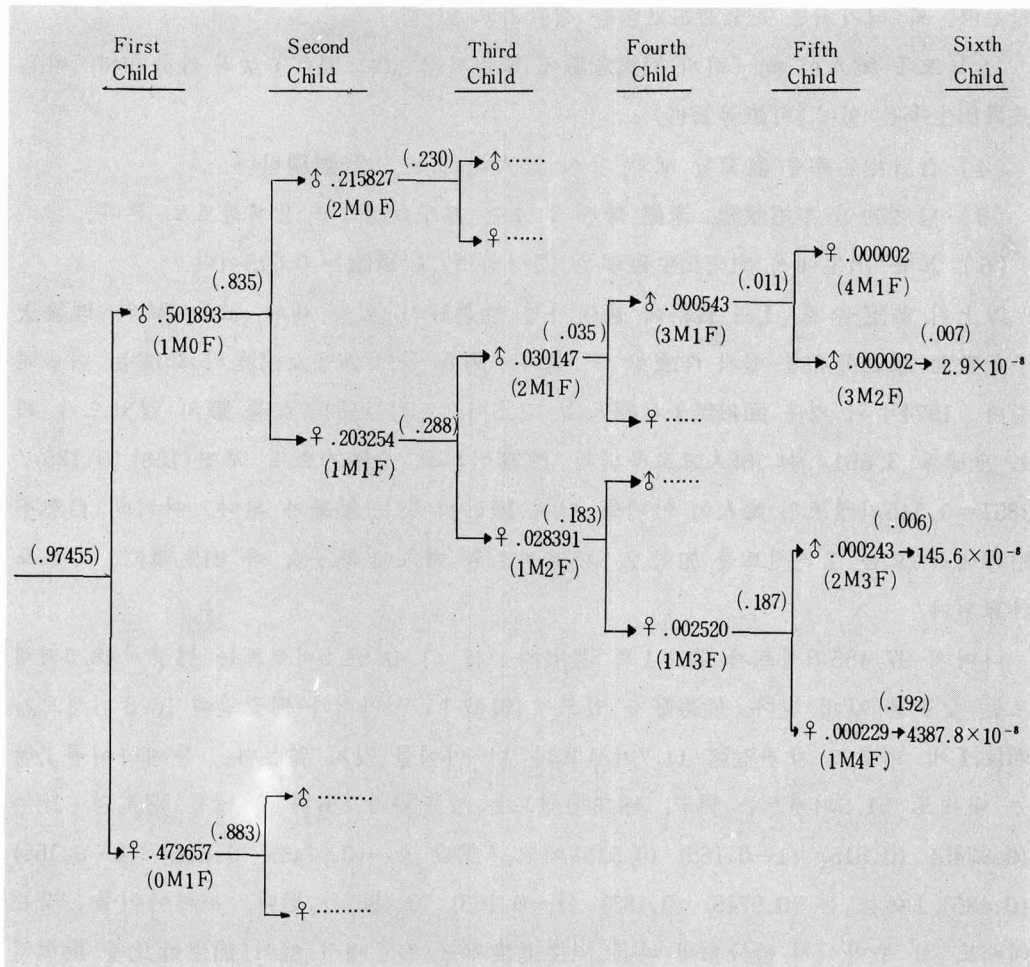
나머지 97.455퍼센트가 順位 1로 進出하는데 이 中 51.5퍼센트는 男子 48.5퍼센트는 女子를 갖게 된다. 性選好가 있으며(模型 1) 첫아이가 男子일때 16.5 퍼센트가 順位 1에 머물고 女子일때 11.7퍼센트가 더 아이를 갖지 않는다. 둘째아이를 낳는 데에도 51.5퍼센트는 男子, 48.5퍼센트는 女子이니 「男男」을 낳는 婦人의 比는 $(0.9745) (0.515) (1-0.165) (0.515)$ 이고, 「男女」는 $(0.9745) (0.515) (1-0.165) (0.485)$, 「女女」는 $(0.9745) (0.485) (1-0.165) (0.485)$ 가 된다. 셋째아이를 갖는 데에도 첫 두아이의 性分布에 따른 出生進度率을 表 1에서 얻어 出生性比를 勘案하

여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家族이 늘어나는 過程을 圖示할 수 있는바 이러한 「家族 成長樹」(family growth tree)의 一部를 圖 1에 例示하였다.

이와같이 家族成長樹가 作成되면 子女의 크기別 家族分布는 쉽게 計算된다. 즉, 子女를 하나만 가지는 期待頻度는 最少 1名을 가지는 家庭 0.9745와 最少 2名을 가지는 家庭 0.8364와의 差 0.1381이다. 性選好가 없는 條件下에서도 (模型 2) 같은 樣式으로 計算하지만 이때 出生進度率은 各 出生順位마다 子女의 性組合에 關係없이 同一한 것은 물론이다.

Figure. Family Growth Tree by Sex Sequence, 1974, Korea

性別 家族成長樹



Ⅲ. 主要結果

1. 性選好態도의 變化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男兒選好思想의 拂拭에 많이 努力하여 왔으나 表1을 보면 1974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5 個年間に 있어서 아들을 하나라도 가져야 하겠다는 態度에는 별變動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두子女 以上을 가진 모든 家庭에서 딸 밖에 없으면 아이를 더 가지려는 傾向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을 複數로 두려는 態度는 현저하게 減少된 것 같다. 1974년에는 세子女 以上을 가진 家庭에서 아들이 하나일 경우 約 20퍼센트의 婦人이 더 아이를 낳고자 하였으나, 5年後에는 그 比率이 半 혹은 그 以下로 줄었다. 한 子女나 두 子女를 가진 家庭에서 아들만 있으면 그것으로 滿足하여 더이상 子女두기를 願치 않는 比率이 增加하고 있다. 男子건 女子건 한 子女로 더이상 子女를 갖지 않으려는 父母는 아직 많지 않다.

2.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

表 1의 追加子女를 希望하지 않는 婦人의 比率은 前節에 記載한 바와 같이 出生進度確率로 換算하여 性選好가 있는 경우(模型1)와 그것이 없는 경우(模型2)의 子女數別 期待頻度を 計算하면 表 2와 같다. 이러한 子女數別 分布表에 의하여 婦人當 平均子女數를 計算하면 1974~1979년의 5年동안에 약간이지만 減少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調査當時와 같은 性選好態도가 存在하는 경우 1974년에는 平均 2.19名의 出生이 1979년에는 平均 2.10名의 出生이 期待되며, 이는 約 4퍼센트의 減少에 該當한다.

1974년의 〈模型2〉에서 平均子女數는 1.98名이고 〈模型1〉의 平均子女數는 2.19名이니 總出生兒中 性選好別로 歸屬시킬 수 있는 出生兒의 比率은 $(2.189 - 1.982) / 2.189 = 9.46$ 퍼센트로 10퍼센트에 未達이다. 5年後인 1979년에는 〈模型2〉의 婦人當 出生數는 1.86名으로 같은 해의 〈模型1〉下의 平均出生數 2.10과 比較하여 全出生의 11.11퍼센트가 性選好로 인하여 過外로 出生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性選好 때문에 오는 過剩出生數는 10퍼센트를 前後하는 比較的 微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計算된 期待子女數는 일종의 規範으로 看做되므로 子女數의 規範은 減少의 傾向을 보이는데 반하여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는 增加의 傾向을 보

Table 2. Expected Family Size Distribution Based on Woman's Desire for Additional Children With and Without Preference for Sex of Children, 1974 and 1979, Korea

子女을 願하는 婦人의 期待子女數

Family Size (X)	1974		1979	
	with sex preference	without sex preference	with sex preference	without sex preference
0	.02545	.02545	.02423	.02423
1	.13811	.16081	.17506	.21955
2	.53620	.62658	.54661	.62691
3	.23904	.18061	.20227	.12698
4	.04817	.00655	.04023	.00233
5	.00978		.00830	
6	.00325		.00330	
E (X)	2.189	1.982	2.097	1.864

이고 있어 注目を 要한다고 하겠다.

또 性選好가 存在하는 경우 多子女家庭의 期待度數가 相對的으로 急激히 增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74년에는 4 兒以上の 家庭이〈模型 1〉下에서 6.12퍼센트로 〈模型 2〉下의 0.66퍼센트에 比하여 9.3倍이지만 1979년에는 이것이 〈模型 1〉에서 5.18퍼센트가 되어 〈模型 2〉 보다 무려 22.2倍가 된다.

3. 子女의 性分布에 미치는 影響

이러한 期待分布를 子女의 性配合別로 計算하면 表 3 과 같다. 여기서 보면 多子女以下의 少子女家庭에서는 아들만 있는 家庭의 期待頻度가 性選好에 關係없이 대체로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딸만 있는 家庭에서는 性選好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期待頻度에 상당한 差가 있어 〈模型 1〉은 〈模型 2〉보다 期待度數가 낮아 결국 우리나라의 性選好란 男兒選好 一辺倒임을 알 수 있다.

性選好로 인한 子女性別分布의 影響은 주로 女兒로 構成된 多子女家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1 男 3 女의 家庭數는 1974년에 있어서 〈模型 1〉이 〈模型 2〉의 15倍가 되고, 1979년에는 43倍가 된다. 0 男 4 女의 家庭數는 1974년의 25倍에서 1979년에는 57倍에 達한다. 따라서 少子女家庭일수록 男兒로 構成된 家庭이 많아지고 反對로 多子女家庭일수록 주로 女兒로 構成된 家庭이 增大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實際로 Park

(1983) 은 1974年資料로 이것을 實證한 바 있다. 즉 面接한 두子女家庭이나 세子女家庭에서는 그 性比가 130에 가까웠으나 다섯子女家庭에서는 102였고 여섯子女以上을 가진 家庭에서는 94에 不過하였다.

Table 3. Expected Sex Distribution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Preference for Sex of Children, 1974 and 1979, Korea
期待子女의 性別分布

Family Size	Sex Composition	1974		1979	
		with sex preference ^{a)}	without sex preference	with sex preference ^{a)}	without sex preference
0	-	.02545	.02545	.02423	.02423
1	1 M 0 F	.08281	.08281	.11307	.11307
	0 M 1 F	.05530	.07799	.06200	.10648
2	2 M 0 F	.16619	.16619	.16627	.16627
	1 M 1 F	.29775	.31301	.31093	.31317
	0 M 2 F	.07226	.14739	.06941	.14746
3	3 M 0 F	.02398	.02467	.01674	.01735
	2 M 1 F	.08309	.06970	.06173	.04900
	1 M 2 F	.10249	.06564	.09636	.04615
	0 M 3 F	.02948	.02060	.02744	.01449
4	4 M 0 F	.00082	.00046	.00047	.00016
	3 M 1 F	.00230	.00174	.00102	.00062
	2 M 2 F	.01298	.00245	.00782	.00087
	1 M 3 F	.02314	.00154	.02357	.00055
	0 M 4 F	.00894	.00036	.00735	.00013
5	5 M 0 F	.00000		.00000	
	4 M 1 F	.00001		.00000	
	3 M 2 F	.00016		.00001	
	2 M 3 F	.00287 (.00289)		.00084 (.00085)	
	1 M 4 F	.00516 (.00638)		.00549 (.00591)	
	0 M 5 F	.00157 (.00358)		.00195 (.00482)	
6		.00325		.00330	

a) Numbers in parentheses are the expected frequency of the first five children with the specified sex composition and an additional child

4. 첫아이 性의 意義

多子女家庭을 이루는가의 與否는 性選好가 있을 경우 첫아이의 性에 많이 關係되어 있다. 첫아이의 性이 주어졌다는 條件下에서 子女數가 늘어나는 確率을 「家族成長樹」에 의하여 表示하면 表 4와 같다. 이 表를 통해서 보면 最少 2名의 아이를 가질 確率은 性選好가 있더라도 첫아이의 性으로 인한 影響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以上은 다르다. 最少 3名의 아이를 가질 確率은 첫째아이가 男兒이면 22퍼센트(1974) 이지만 그것이 女兒이면 41퍼센트로 된다. 이러한 差는 子女數의 크기와 함께 加速度로 增加한다. 예를 들어 最少 5 兒家庭이 될 確率은 첫아이가 男兒일 때 0.11퍼센트(1974) 에 不過한데 反하여 女兒일 때에는 2.6 퍼센트로 實로 24倍라는 隔差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差異는 1979년에 더욱 심하여 最少 5 兒家庭이 되는 確率은 첫아이의 性에 따라 100倍以上 달라지는 結果가 된다.

Table 4. Probability of Having Specified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Depending on the Sex of the First Child in the Presence of Sex Preference, 1974 and 1979, Korea

첫 아이의 性別 追加子女를 가질 確率

Minimum Number of Children	First Child = M		First Child = F	
	1974	1979	1974	1979
	2	.8350	.7750	.8830
3	.2155	.1524	.4063	.3750
4	.0173	.0084	.1111	.1006
5	.0011	.0002	.0264	.0243
6	.0001	.0000	.0068	.0070

IV. 考 察

本稿에서는 子女의 性에 대한 選好가 있을 경우(模型 1)와 없는 경우(模型 2)의 期待出生數를 換算하였다. 算出에 利用된 基本過程은 1974年과 1979年에 있는 出生力調査에 나타난 現存子女의 性分布別 追加子女 希望與否率이다. 이러한 期待出生數에 의하여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를 推定하고 兩 模型 下의 子女數別 및 그 性配合別 理論分布를 表示하였다. 所見에 대한 討議에 앞서 基本假定을 中心으

로 檢討를 하고자 한다.

婦人이 追加子女를 願하지 않으면 完全無缺한 避妊法을 使用하고 該외의 婦人은 全部 다음 아이를 낳는다고 假定한 것은 물론 出産過程을 지나치게 單純化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主된 關心은 性選好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度인바 이러한 假定은 影響度의 推定에 그리 큰 偏倚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 避妊은 그 方法에 따라 效果에 많은 差가 있고 追加子女를 願하지 않는다고 꼭 避妊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子女의 性配合으로 인하여 일단 아이를 더 갖지 않고자 한 婦人들의 避妊을 實踐하느냐, 만일 한다면 어떤 方法을 使用하느냐하는 것은 婦人의 宗教, 教育, 年齡, 親舊 等 다른 社會, 文化的要因에 따라 主로 決定될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이다. 또 現存子女數 中 아들이 많은가 딸이 많은가에 따라 可妊力에 差가 있을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假定으로 인한 出生數推定上의 偏倚는 그 方向이 正이던 負이던 간에 兩 模型에 同一하게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이 假定에서 子女의 數別, 性分布別 出生進度確率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期待 出生數나 期待出生順位 (parity) 分布의 計算에는 별 問題가 없다. 그러나 現存性選好條件下에서의 期待出生數는 1974年 2.19名, 1979年 2.10名으로 當時의 合計 出生率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結果로서 合計出生率은 實際로 發生한 出生에서 얻은 數이지만 本稿의 出生數는 장차 出生에 대한 意圖에서 얻어진 數이기 때문이다. 兩者間에 時間的으로 差가 있을 뿐아니라 出生을 願하지 않는 婦人이라고 하여 다 非임하는 것도 아니고 非임하는 婦人이라도 失敗가 있기 마련이다. 별로 큰 理由는 안되지만 現存子女는 死亡兒를 除外한 것인데에도 關係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追加子女를 願하는가에 따라 計算된 出生兒數는 일종의 子女數規範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規範으로 자주 利用되는 理想子女數와 比較해도 상당히 낮다. 즉, 1976年은 理想子女數가 2.8,⁶⁾ 1982年에 2.5⁷⁾ (表 1에 依據)이니 本稿의 出生數와 0.7程度의 差가 있지 않나 한다. 이러한 差가 연유하는 바는 분명치 않으나 出産行動의 決定은 그때의 狀況에 따라 變動하는 것을 示唆하고 있는듯 하다. 즉 理想子女는 한 時點에서의 決定(one-time decision)이지만 出生進度에서 計算된 出生數는

6) 朴丙台外,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서울, 家族計劃研究院, 1978.

7) 文顯相外, 前掲書, 1982.

이미 出生한 아이들의 特性(여기서는 數와 性)을 考慮하여 가며 漸進的으로 決定하는 sequential decision making 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兩者는 서로 意味하는 바가 다른 規範이라 하겠다.

結果的으로 本稿에서는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는 全出生數의 10퍼센트를 前後하는 것으로 나타나 一部 人士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다고 하겠다. 강렬한 男兒選好傾向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韓國에서 出産力에 미치는 그 영향이 比較的 낮은 것은 一見 의아한 일이지만 再考하여 보면 首肯이 안가는 바 아니다. 出生兒의 性은 우리가 마음대로 決定할 수 없는 것이지만 男子나 女子나 出生하는 確率은 다같이 半半이다. 이때문에 아이를 出産하다 보면 그 性의 配合이 自然的으로 父母를 滿足시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가령 1982年の 查調結果를 보면 過半數의 面接婦人이 두 아이를 理想子女數라고 하고 있다.⁸⁾ 이때 아들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두子女家庭의 75퍼센트는 그 속에 들게 된다.

過去の 여러 調査의 設問은 婦人들의 出産經驗에 關係없이 딸만 낳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고루 묻고 있다. 그 結果 男便에게 妾을 얻게 하겠다는 婦人이 半이라든가 아들 낳을때까지 계속 낳겠다는 婦人이 半이라든가 하는 「놀라운」 應答을 얻어 男兒選好가 出産力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云誦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設問은 어디까지나 아들이 없다는 假說條件下에서 물은 것이고 實際的으로는 應答者의 大部分이 아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狀態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아들 없는 夫婦들의 스러움을 많이 들은 바 있으나 直接 그러한 處地에 있는 것은 아니니 너그럽게 「男便에게 妾을 얻어서라도」라고도 할 수 있고 손쉽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겠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그런 狀況에서 感情的으로 容納이 되겠는지 問題이다. 無制限 아이를 낳는다는것 自體가 生物學的으로 不可能할 뿐 아니라 딸을 열이고 스물이고 낳은 後에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지 當하지 않는 狀態에서는 誇張된 對答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調査時의 應答을 額面대로 받아들여도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大部分의 婦人들은 最少 아들 하나는 있기 마련이다. 本稿에서 假定한것처럼 男兒出生의 確率이 0.515 라면 2兒를 낳아서 둘다 딸인 確率은 0.235에 不過하다. 1982年 調査에서처럼 딸만 둘 있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婦人이 48.8퍼센트 있다 하여도 實際로는 0.235

8) 文顯相外, 前揭書, 1982.

$\times 0.488 = 0.115$ 의 婦人이 계속해서 出産하는 것이지 48.8퍼센트가 아니다. 이 들을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micro-level 에서 重大한 意義를 지니지만 아들 없는 家庭의 比率이 별로 크지 않으면 macro-level 에서의 意義는 대단한 것이 못된다.

Kwon (1982) 은 願하는 男兒數에만 到達하면 出産行爲를 中止할 수 있는 까닭에 實際出生數는 男兒選好로 말미암아 願하던 總子女數보다 적을 수 있다고 하였다. McClelland (1980) 는 x 名의 男兒와 y 名의 女兒 즉 (xM, yF) 의 性配合를 가진 婦人이 아들 하나를 더 願하여도 $(x+1M, yF)$ 와 $(xM, y+1F)$ 가 同一하게 可能하므로 後者의 配合를 꺼리게 되면 그 後의 生産活動을 中斷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男兒選好는 出生率의 低下에 寄與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性選好의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度는 子女數의 規範과 많은 聯關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 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子女 以上の 家庭에서는 最少 아들 하나만 있으면 대체로 아이를 더 가지기를 願하지 않고, 딸만 있을때에 限하여 50퍼센트以上이 追加子女를 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딸만 있는 家庭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出生數가 增大됨에 따라 그런 家庭은 加速度로 減少된다. 세子女를 낳아서 다 딸일 確率은 11퍼센트이고, 네子女를 낳아서 다 딸일 경우는 6퍼센트에 未達한다. 따라서 子女數의 規範이 클수록 男兒選好의 影響은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子女 및 두子女家庭에서 딸만 있는 比率은 各各 50퍼센트, 25 퍼센트에 가까워 그 比重이 크다. 따라서 만일 子女數의 規範이 2名以下가 될때에는 男兒選好의 영향이 相對的으로 增加할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本稿에 있어서도 5年間이란 짧은 時日임에도 不拘하고 規範은 減少하였으나 性選好의 影響은 增加하였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理想子女數는 꾸준히 下降하여 왔다. 1960年代 後半에는 3.9名이었으나 1971년에 3.7名, 1973년에 3.1名, 1976년에 2.8名이었다.⁹⁾ 가장 最近調査인 82년에는 2.46名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速度는 완만해진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趨勢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性選好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力의 強度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現在와 같은 性選好態度가 維持되는한 언젠가는 性選好 때문에 出産力을 더 줄일 수 없는 時期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9) 朴丙台外, 前掲書, 1978.

少子女家庭은 주로 男兒로 構成되고, 多子女家庭은 주로 女兒로 構成되리라는 것은 本稿에서 理論的으로 밝혀졌다. 實際로 이는 1974年 資料에 의하여 經驗的으로 立證된 바 있다.¹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社會에 커다란 意義를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 少子女家庭의 構成員은 養護, 教育, 醫學 等 여러面에서 多子女家庭의 構成員보다 有利한 點을 지니고 있다. 이미 男性優位의 社會에서 이러한 惠澤이 男兒에게 더 많이 가게 된다면 性隔差는 더욱 커질 것이다. 心理的, 知的인 發展도 西洋 國家에서는 少子女家庭兒가 앞선다고 하였다.^{11) 12)} 現時點에서 性選好가 出生率에 큰 影響을 못미친다 해도 micro-level 에서의 意義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問題라고 하겠다.

V. 結 論

本稿에서는 出産力調査에 나타난 現存子女의 性分布別 追加子女希望與否 資料에서 理論的인 出生進度確率을 얻어 子女의 體性選好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婦人當 出生數와 出生兒分布를 性配合別로 計算하였다.

韓國에서 性選好로 인한 過剩出生數는 1974年과 같은 狀況下에서는 全出生數의 9.5퍼센트, 1979年度 狀況下에서는 11.1퍼센트로 比較的 적은 數值였다. 우리나라의 性選好는 男兒選好一辺倒로서 少子女家庭은 주로 男兒로, 多子女家庭은 주로 女兒로 構成되며 社會的인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첫아이의 性이 궁극적인 子女의 規模에 影響을 미치며 첫째아이가 女兒이면 多子女家庭으로 될 確率이 男兒인 경우보다 顯著히 크다. 性選好의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은 子女數의 規範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規範이 작을수록 그 影響이 커지는 까닭에 앞으로 性選好로 인한 出生數의 比重이 매우 커질 可能性이 있다.

10) Park, C. B., "Preference for Sons, Family Size, and Sex Ratio: An Empirical Study in Korea," *Demography* 20, 1983, pp. 333~352.

11) Blake, J.,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 1981, pp. 421~442.

12) Terhune, K. W., *A Review of the Actual and Expected Consequences of Family Size*, Calspan Report No. DP. - 5333-G-1, Publication No. (NIH) 75-779, Washington, D. 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4.

參 考 文 獻

- 文顯相, 咸喜順, 申成姬,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 서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林丙台, 崔炳睦, 權豪淵,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서울, 家族計劃研究院, 1978.
- 朴貞恩, 金慕任, “韓國農村 婦人이 원하는 子女數와 性選好態度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論集, 第3號, 1976.
- Blake, J.,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 1981.
- Bulatao, R. A., J. Tom and C. E. Angeles, “Margins by Country and Sex,” *Value of Children Project*, Technical Note, No. 3,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8.
- Chung, B. M., J. A. Palmore, S. J. Lee and S. J. Lee,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ym, 1979.
- Coombs, C. H., L. C. Coombs and G. H. McClelland, “Preference Scales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1972.
- Freedman, R. and L. C. Coombs, *Cross-Cultural Comparisons: Data on Two Factors in Fertility Behavior*,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74.
- Kim, N. I. and B. M. Choi, “Preference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and Contraceptive Use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49*, Bangkok, UNESCAP, 1981.
- Kwon, T. H.,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In Y. Chang, T. H. Kwon and P. J. Donaldson, eds.,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 SUN Press, 1982.
- Kwon, T. H. and H. Y. Lee, “Preference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in a Korean Town,”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0.
- McClelland, G. H., “A Psychological Measurement Theory Approach to Fertility Decision Making.” In T. Burch, ed. *Demographic Behavior: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Decision Making*, Boulder, Westviews Press, 1980.

- Park, C. B., "The Fourth Korean Child: The Effect of Son Preference on Subsequent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s*, 1978,
- Park, C. B., "Preference for Son's, Family Size, and Sex Ratio: An Empirical Study in Korea," *Demography* 20, 1978.
- Rinehart, W., "Sex Pre-Selection - Not Yet Practical," *Population Reports*, Series 1, No. 2, 1975.
- Sheps, M. C., "Effects of Family Size and Sex Ratio of Preference Regarding the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17, 1963.
- Turhune, K. W., *A Review of the Actual and Expected Consequences of Family Size*, Calspan Report No. DP-5333 -G - 1, Publication No. (NIH) 75-779, Washington, D. 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4.

Abstract

Estimating the Excess Births due to Preference for Sex of Children

Chai Bin Park* Ph.D·Nam-Hoon Cho**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s the impact on fertility of sex preference for sex of children. For this purpose, expected number of births per woman and parity distribution by sex composition of children have been calculated under two models: (a) in the absence of and (b) in the presence of sex preference. Data used were from the 1974 and 1979 fertility surveys of Korea. The complement of the parity-sex-composition specific proportion of women wanting no more children is taken as the probability of the next birth.

The excess births attributable to sex preference was 9.5 percent of all births under the conditions of 1974 and 11.1 percent under those in 1979. Thus, the fertility impact of sex preference is only moderate. The degree of such impact, however, is closely related to the family size norm. It can become very large with the reduction of the family size norm. As sex preference in Korea is essentially son preference, small families will mainly be composed of boys and large ones of girls; the situation may bear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s. The sex of the first chil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pensity to subsequently form small or large families. Under the assumption of a continuation of the 1979 conditions, the probability of having five or more children would be over 200 times greater if the first child were a girl than if it were a boy.

* Professor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Hawaii, USA and Research Associat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USA.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